

제7회 금융대전 은퇴설계 강의

- 5가지 질문으로 풀어본 은퇴준비 전략

Profile

성명

김 대 근

학력

1999년 2월 서강대학교
신문방송학 & 경영학과 졸업

자격

CFA(국제재무분석사)
CFP(국제재무설계사)
투자자산운용사
증권투자상담사, 파생상품투자상담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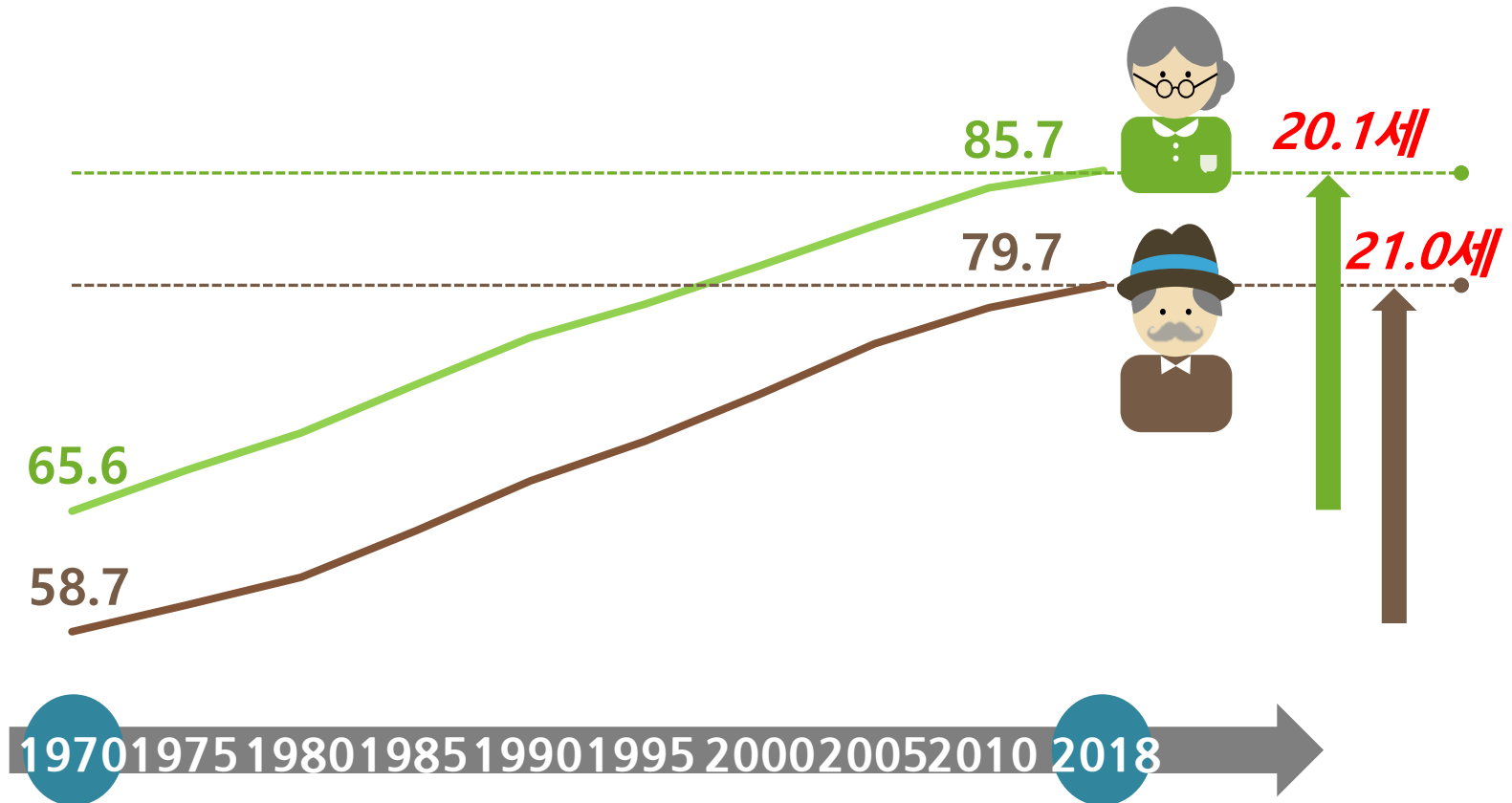
주요경력

2007년_ 삼성생명보험 입사
2009년~2011년_ 삼성생명 FP센터
2011년~2014년_ 미래에셋은퇴연구소
2015년_ NH농협은행 은퇴전문가



1.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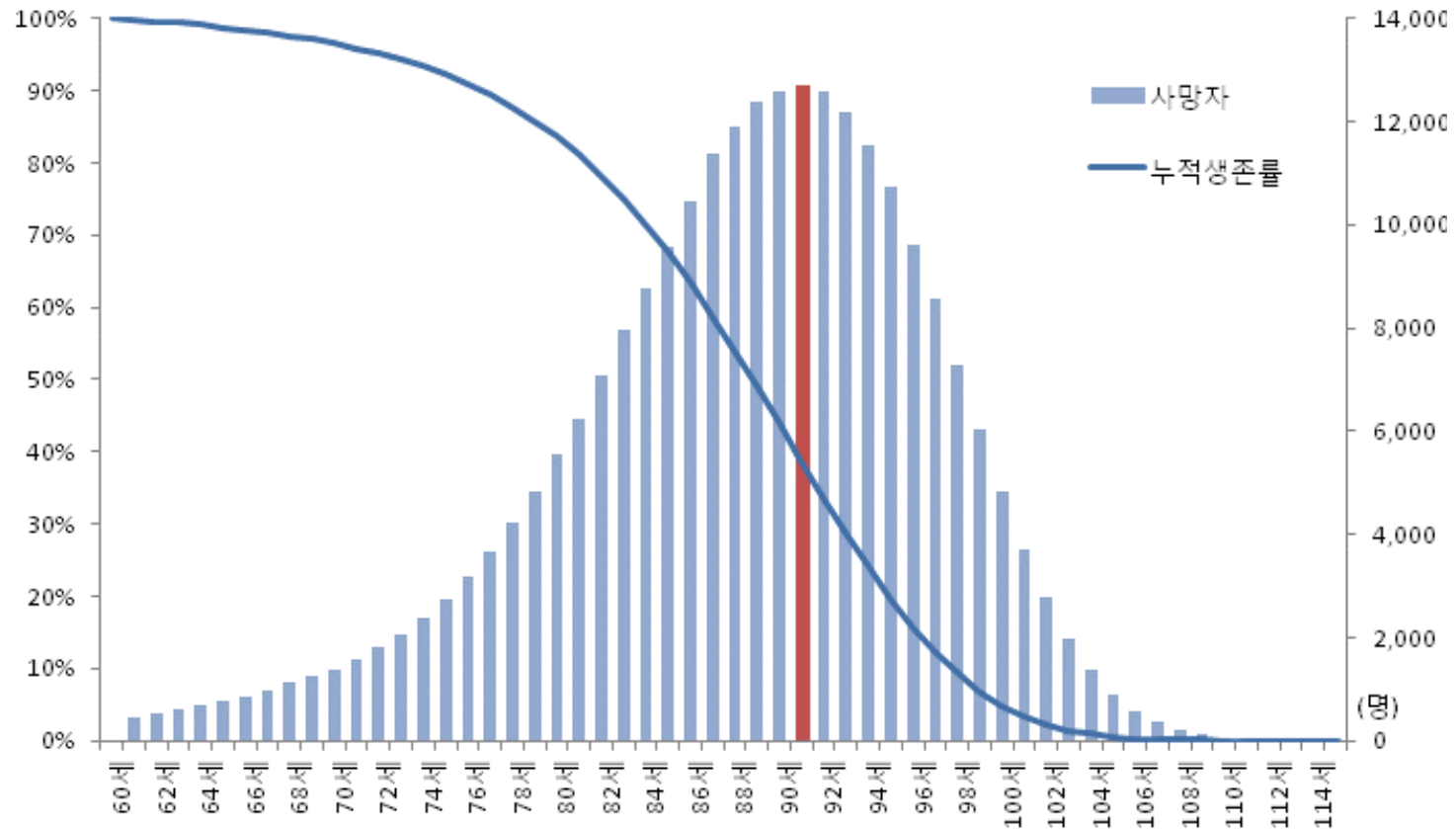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추이(1970~2018년)



자료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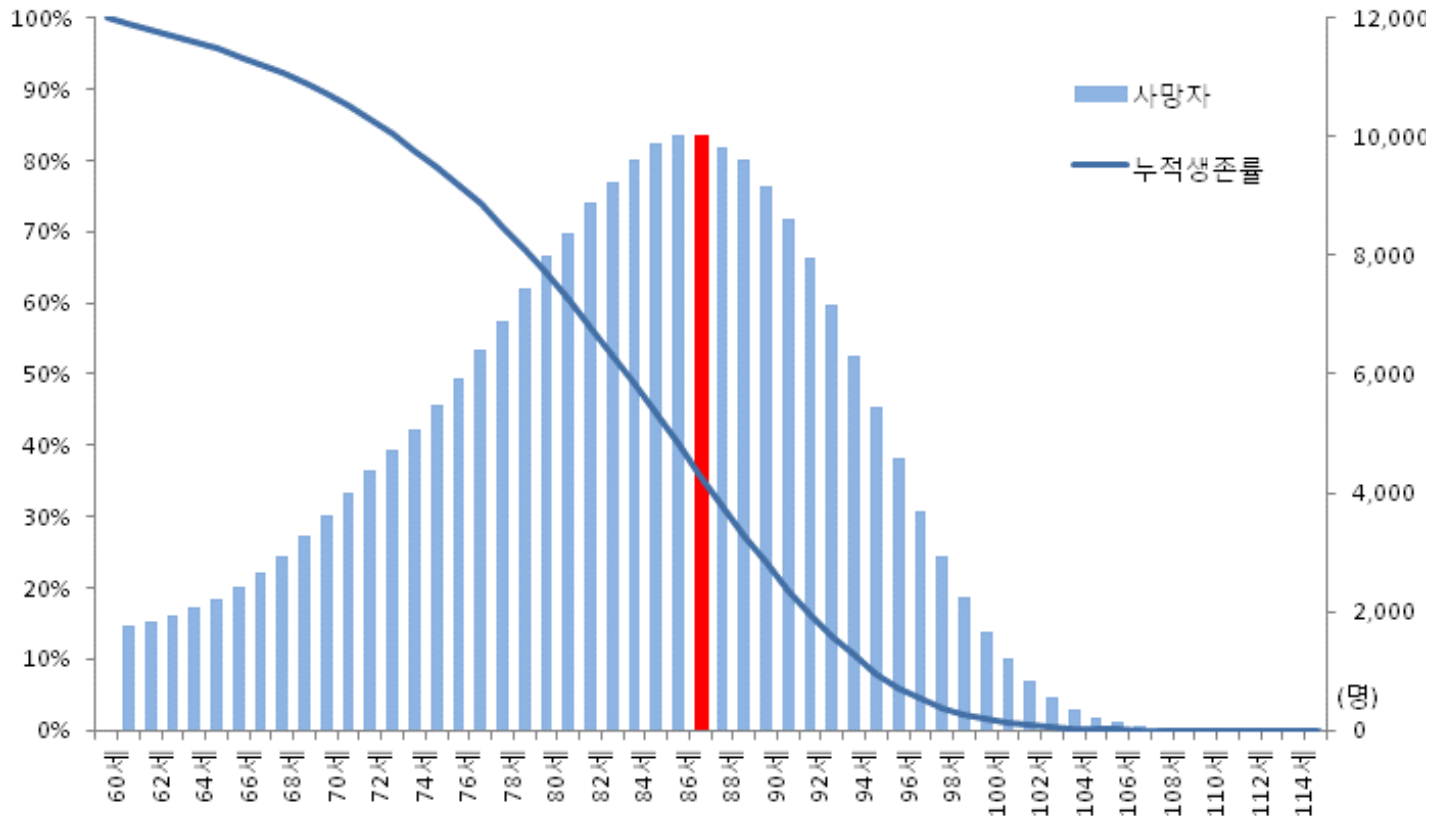
60세 여성, 나는 몇 살까지 살까?

- 60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**27.4세**이며, **90세**에 가장 많이 사망함.



60세 남성, 나는 몇 살까지 살까?

-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**22.8세**이며, **86세**에 가장 많이 사망함.



1. 수명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은퇴자금은 늘어난다

- 매월 200만원의 은퇴생활비를 지출한다면 수명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필요한 은퇴자금은?
- 평균수명이 70~80세 였던 과거와는 다른 은퇴준비 전략이 필요하다

2. 종신형 연금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

- 기간형, 확정형 연금과 달리 종신형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
- 현재 종신형 연금은 공적연금, 주택연금과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 뿐이다

3. 연금을 수령하는 것에도 전략이 필요하다

- 은퇴생활 초반부에 대부분의 연금을 수령해 버리면 은퇴생활 후반부는?
-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금 수령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

4.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장기간을 확인해야 한다

- 보험회사는 보장기간 내에 발생한 질병,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
-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이 짧지 않은지, 공백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

2. 노후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?

• 서울 거주자 적정 노후생활비 284만원

■ 2017년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 월평균 노후생활비

거주지역	적정노후생활비* <부부>	적정노후생활비 <개인>
전체	243만원	154만원
서울	284만원	177만원
광역시	236만원	139만원
도 단위	233만원	152만원

* 적정노후생활비 :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

•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임을 전제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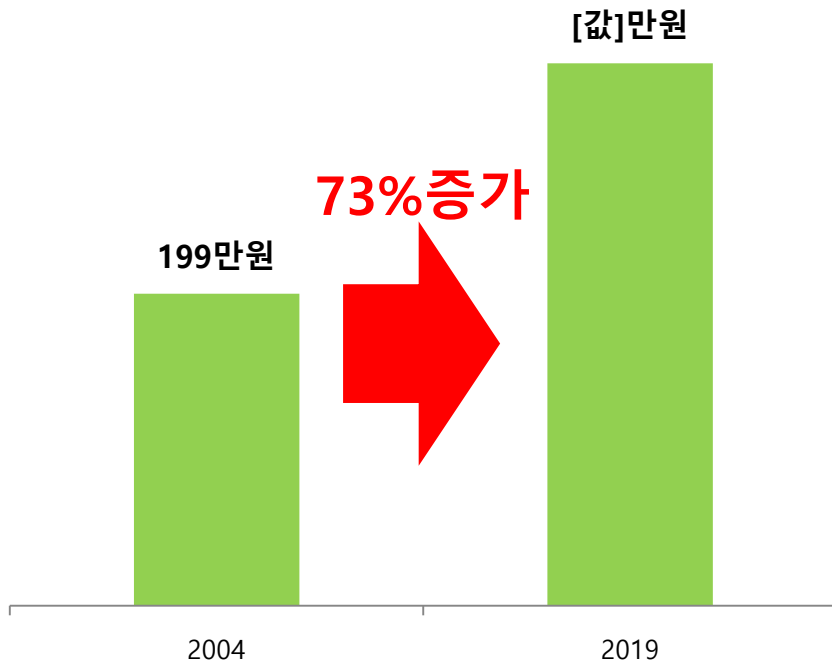
실제 60세 이상 가구주는 얼마를 벌고 쓰나? 세100 플랜

내 삶의 힘, 100세 시대 은퇴파트너

실제 은퇴자인 60세 이상 가구주의 소득과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**증가**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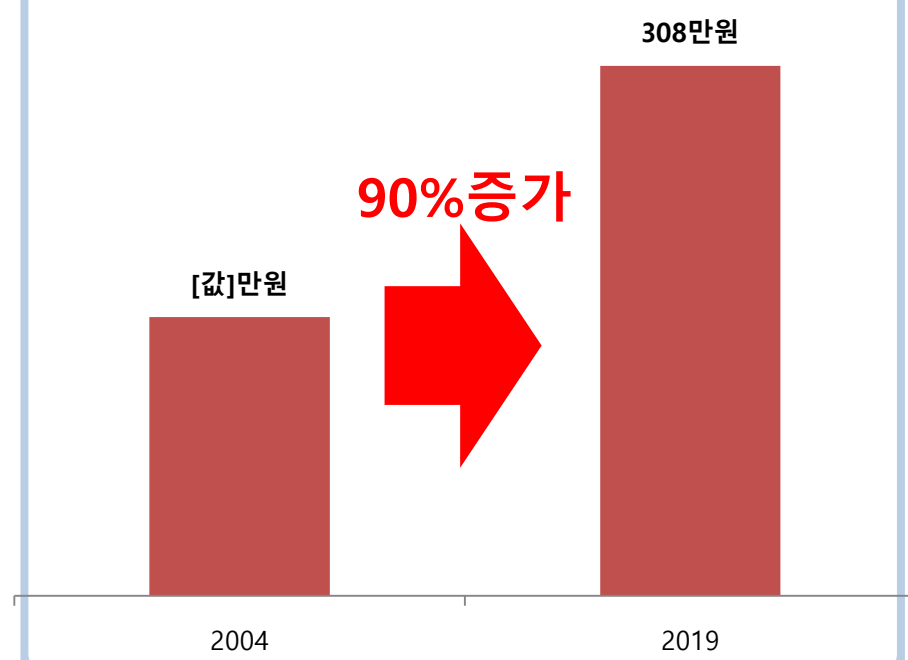
- 실제 60세 이상 가구주의 **2019년 월 소득은 346만원**으로 15년간 **73% 증가**하였음
- 실제 60세 이상 가구주의 **2019년 월 지출액은 308만원**으로 15년간 **90% 증가**하였음

60세 이상 가구의 월 소득은 346만원



자료 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(2019)

60세 이상 가구의 월 지출액은 308만원



자료 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(2019)

3.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?

❖ 국민연금

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. 제대로 활용하면 혜택이 많아지는 국민연금!

출생연도	수급개시연령		
	노령연금	조기노령연금	연기연금(최대연기연령)
1952년 이전	60세	55세	65세
1953-56년	61세	56세	66세
1957-60년	62세	57세	67세
1961-64년	63세	58세	68세
1965-68년	64세	59세	69세
1969년 이후	65세	60세	70세

노령연금 지급

* 가입기간 10년 : 기본연금액 50% +

부양가족 연금액(배우자 월 21,813원, 자녀·부모 월 14,538원)

* 가입기간 20년 : 기본연금액 100% +

부양가족 연금액(배우자 월 21,813원, 자녀·부모 월 14,538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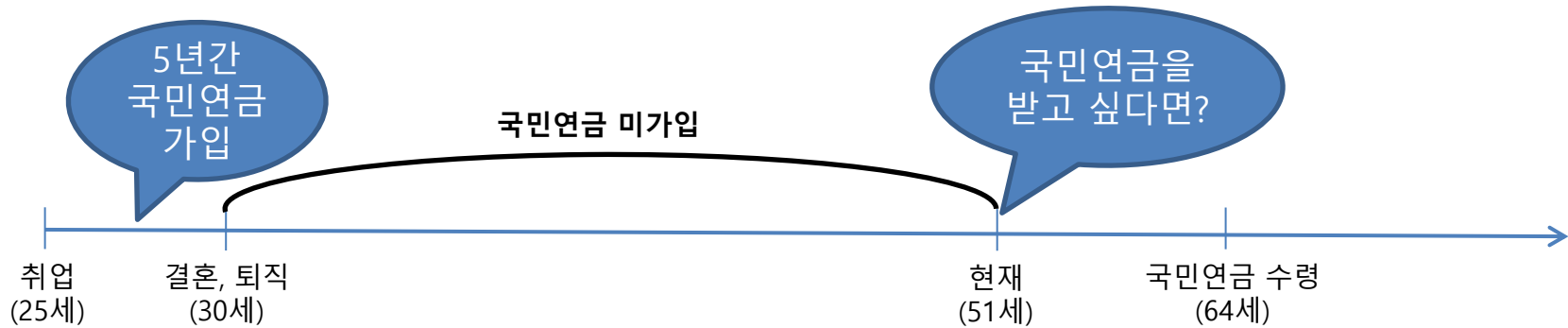
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야 하나?

월 납입금액	가입기간		
	10년 납입	15년 납입	20년 납입
90,000원	179,670원	265,630원	351,600원
200,700원	243,930원	360,650원	477,370원
300,600원	301,930원	446,400원	590,860원
437,400원	381,350원	563,820원	746,280원

* 2020년 가입을 가정하였음

* 자료 : 국민연금공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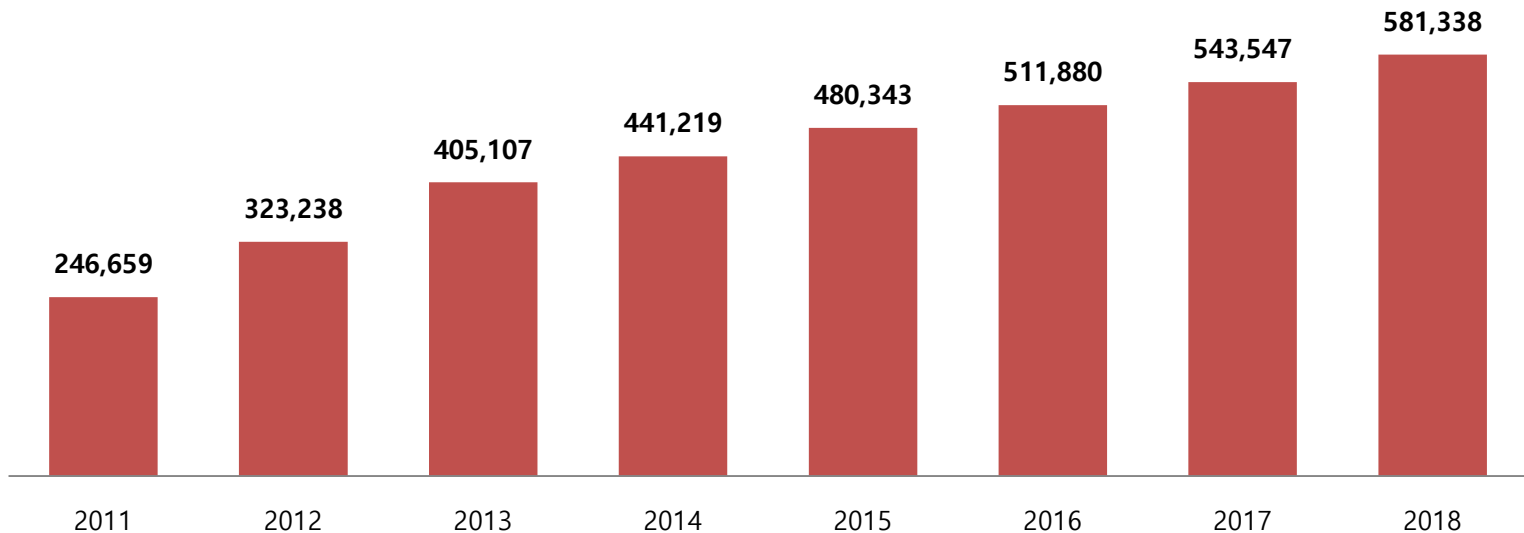
기존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?



추납제도

- ✓ 국민연금 가입 중 갑작스런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'납부예외'와 '적용제외' 기간이 있을 경우
- ✓ '납부예외'와 '적용제외'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
- ✓ 단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만 가능함

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추이



* 자료 : 국민연금공단

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조건

- 1)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**10년 이상**
- 2) **소득이 있는 업무(월 2,438,679원 이상 근로·사업·임대 소득 있는 경우)**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.
- 3) 노령연금 수령연령을 **최대 5년**까지 앞당길 수 있다.

(노령연금 수령연령 63세 - 조기노령연금 58세)

* 조기노령연금 수령 예시

조기수령 (년 6% 감액) : 조기노령연금					정상수령
58세	59세	60세	61세	62세	63세
70만	76만	82만	88만	94만	100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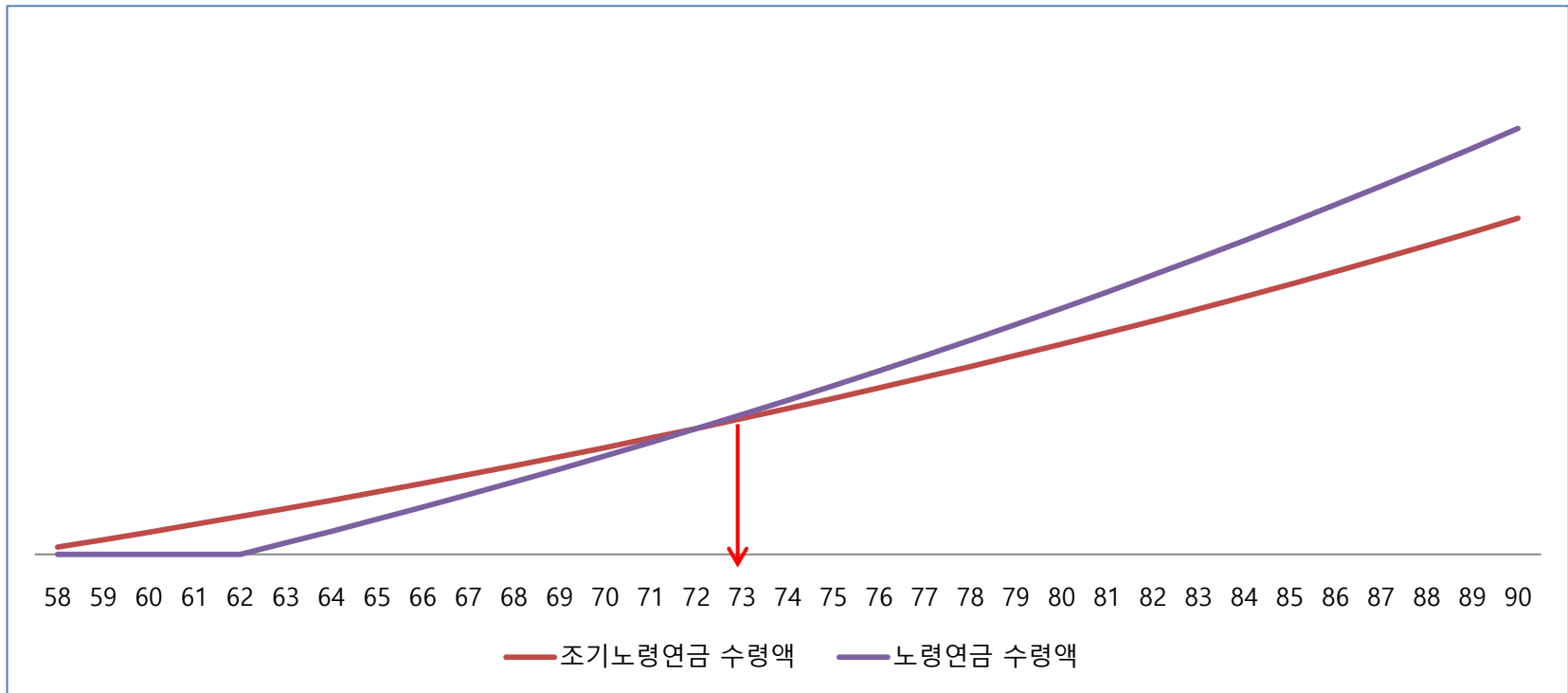
* 58세 수령시 : 기본연금액 70% + 부양가족 연금액은 원래 수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음

*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연령별 지급율 6%를 증액

(연령별 지급율 : 58세 70%, 59세 76%, 60세 82%, 61세 88%, 62세 94%)

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유리한가요?

* 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 누적 수령액



* 가정 : 물가상승률 2%, 90세 사망시

- ① 만 58세부터 70만원을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
- ② 만 63세부터 1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
- ①과 ②를 비교시 만 73세를 넘으면 조기노령연금의 수령액이 노령연금보다 작아진다.

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드나요?

노령연금 지급 (재직자 노령연금, 2015년 7월 29일 이후)

A값 초과소득 월액	노령연금 감액분	월 감액금액
100만 미만	초과소득월액의 5%	0~5만원
100만 이상 200만 미만	5만원 + 100만원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%	5~15만원
200만 이상 300만 미만	15만원 +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%	15~30만원
300만 이상 400만 미만	30만원 +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%	30~50만원
400만 이상	50만원 +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%	50만원 이상

* 초과소득월액 = 노령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 - 국민연금 전체가입 최근 3년 월평균소득

*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

월평균 소득금액 계산

월평균 소득금액 = [근로소득금액 + 사업(부동산 임대소득 포함)소득금액] / 종사월수

- 근로소득금액 : 총급여 - 근로소득공제액
- 사업소득금액 :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
*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최근 3년 월평균 소득(2,438,679원)을 넘으면 재직자 노령연금에 해당

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: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,060만원을 넘으면 노령연금 수령시 감액

정상수령					
63세	64세	65세	66세	67세	68세
100만	100만	100만	100만	100만	100만
50만	50만	50만	50만	50만	100만

개정 기준예시
(사업소득금액 월 604만 유지 시)



* 연기연금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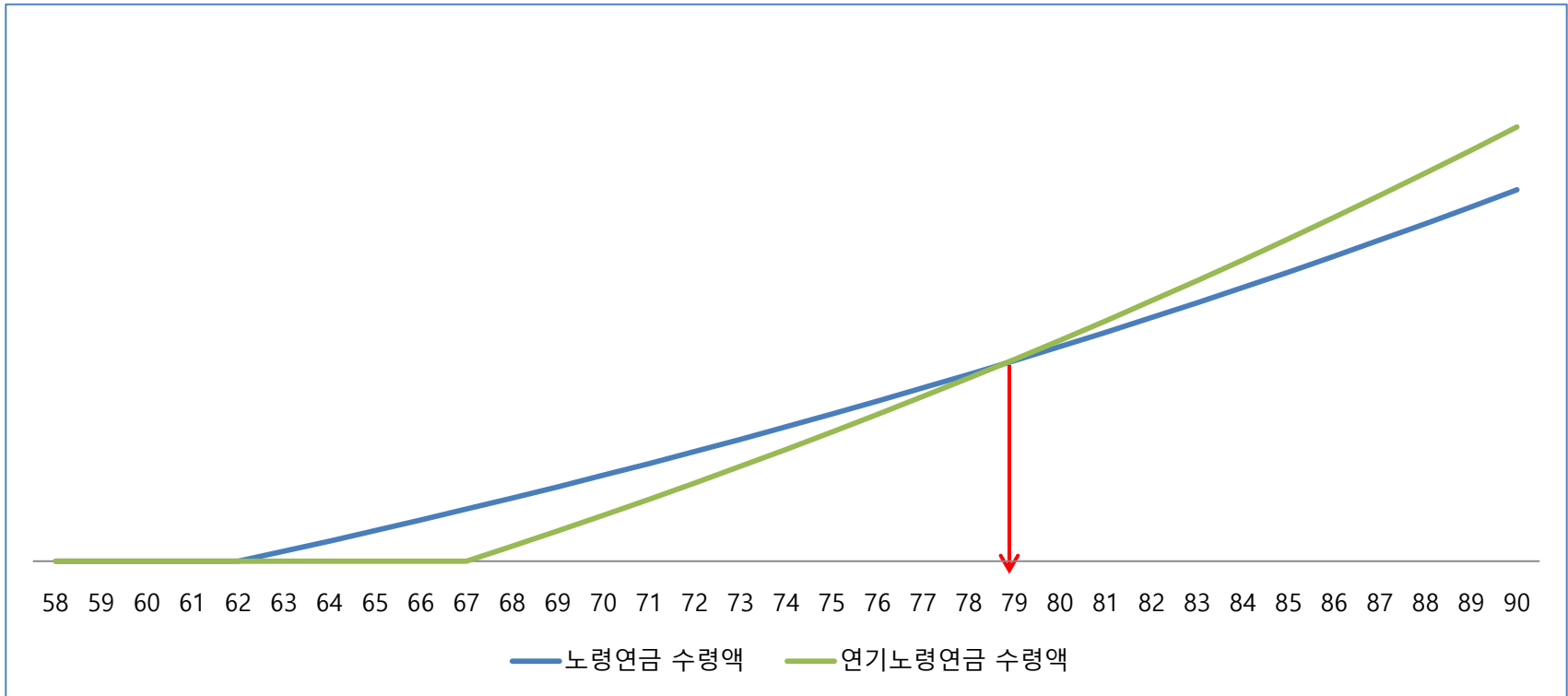
- 1)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**1회**에 한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**최대 5년**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**전부 또는 일부**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
- 2) 연기 비율은 **50%, 60%, 70%, 80%, 90%, 100%** 중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음
- 3) 연기한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**1년당 7.2%**(월 0.6%)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된다

* 연기연금수령 예시

정상수령	연기수령 (년 7.2% 금리로 가산) : 연기연금				
63세	64세	65세	66세	67세	68세
100만	107.2만	114.4만	121.6만	128.8만	136만

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유리한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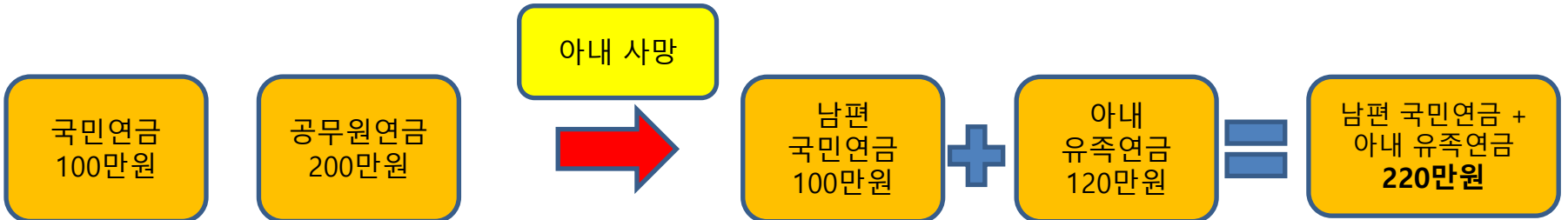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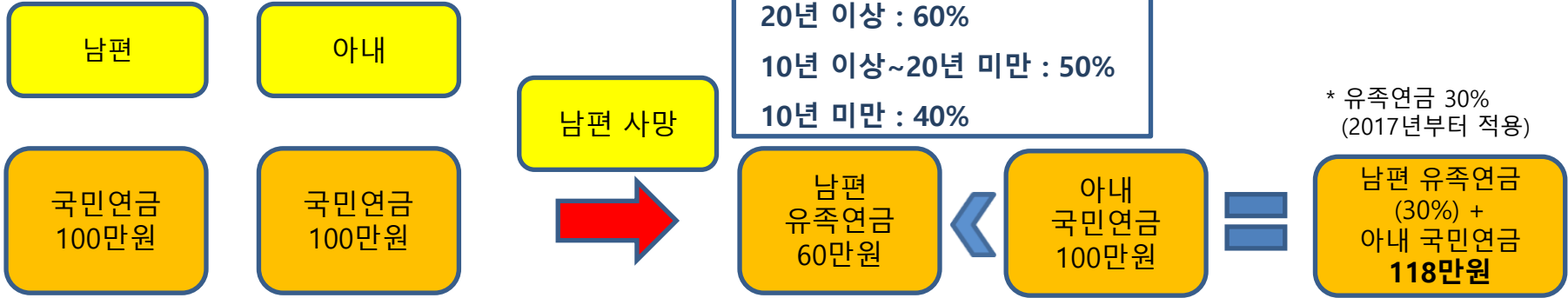
*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누적 수령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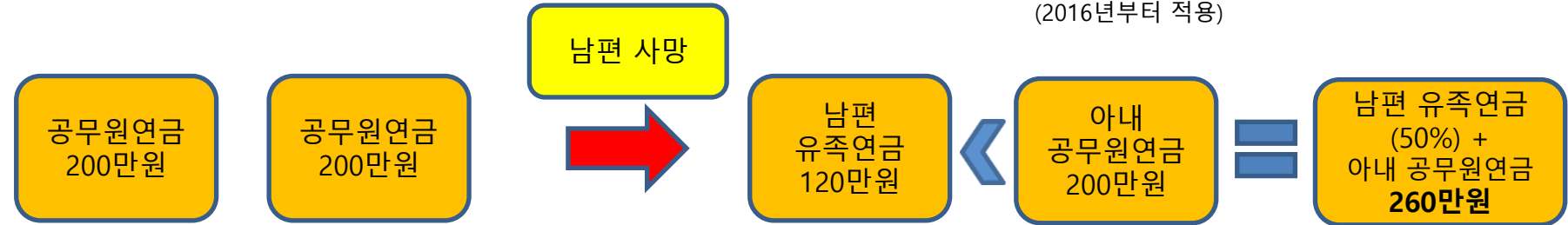
* 가정 : 물가상승률 2%, 90세 사망시

- ① 만 63세부터 1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
- ② 만 68세부터 136만원을 연기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
- ①과 ②를 비교시 만 79세를 넘으면 연기연금의 수령액이 노령연금보다 더 많아진다.

배우자 사망시 공적연금 중복급여 가능?



* 유족연금 60% (2016년부터 적용)



* 유족연금 60% (2016년부터 적용)

4.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려면?

연금저축 세액공제

✓ 매년 납입금액 400만원 세액 공제

연봉 5,500만원 이하 근로자 (연 15% 세액공제) : 연 660,000원의 세금 절약

연봉 5,500만원 초과 근로자 (연 12% 세액공제) : 연 528,000원의 세금 절약

* 단, 연봉 1억 2천만원 이상 근로자는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축소

* 2022년까지 50세 이상 장년층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확대

연금저축 저율과세

✓ 저율과세 (연금 수령시 3~5% 이하의 낮은 세율 적용)

✓ 분리과세 (연간 연금수령액 1,200만원 이하 및 연금 외 수령시 분리과세로 완결)

✓ 과세이연 (운용기간 중 이자·배당 소득세 비과세)

퇴직연금 세액공제

✓ 2015년부터 연금저축 + 퇴직연금 7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

연봉 5,500만원 이하 근로자 (연 15% 세액공제) : 연 495,000원의 세금 절약

연봉 5,500만원 초과 근로자 (연 12% 세액공제) : 연 396,000원의 세금 절약

* 2022년까지 50세 이상 장년층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확대

퇴직연금 저율과세

✓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일부 차감하여 연금수령을 유도
일시금 수령시 예상되는 퇴직소득세의 70%만 부과

* 단, 연금수령시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%만 부과

퇴직급여 수령방법 선택하기



퇴직소득세



연금소득세

퇴직급여 수령방법은 연금 or 일시금?

* 퇴직급여 연금·일시금 수령시 납부세액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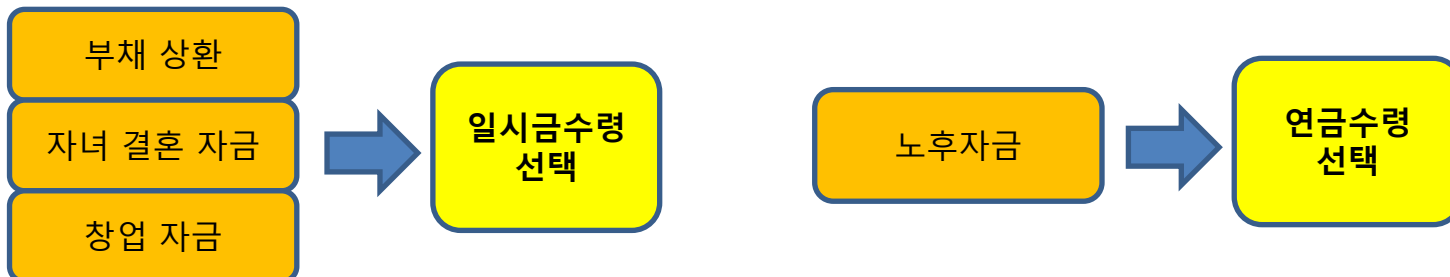
퇴직급여	퇴직소득세	연금수령시 이연 퇴직소득세
2,000만원	52만 8,000원(2.6%)	36만 9,600원(1.8%)
2억 원	1,110만 1,200원 (5.6%)	777만 840원(3.9%)

* 기본가정 : 2015년 퇴직, 근속년수 10년, 연금수령기간 10년, 연금저축 수령액 없음

* () 안의 숫자는 실효세율

- 2015년에 변경된 세법의 연금소득세 계산방식의 가장 큰 변화는 무조건 퇴직소득세의 **70%**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이다.

* 퇴직급여의 사용목적



연금저축의 HISTO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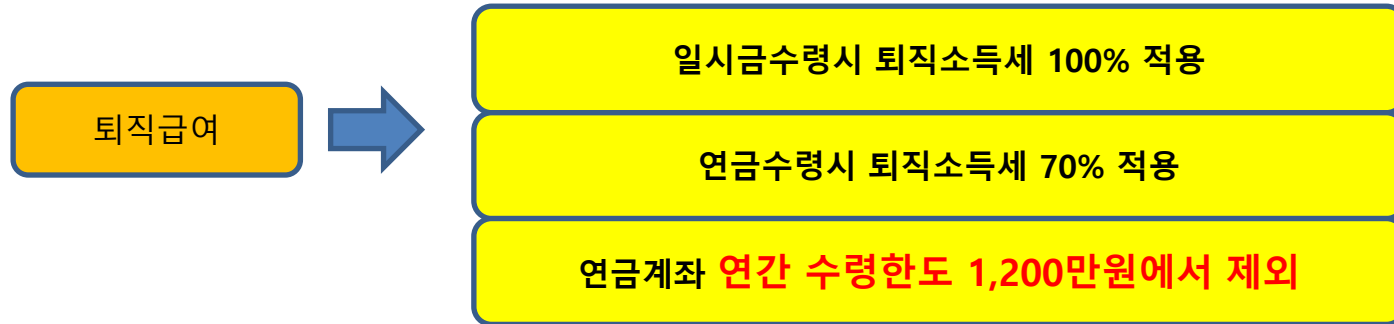
구) 개인연금	연금저축	연금저축계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994년 6월 ~ 2000년 12월(판매종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01년 1월 ~ 2012년 12월(판매종료) *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3년 1월 ~ 현재 판매 중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 20세 이상 거주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 18세 이상 거주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한 없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간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 (72만원 한도) • 이자소득세 비과세 • 연금 수령 시 : 비과세 • 중도해지 시 : 이자소득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간 납입액의 12% 세액공제 (연 400만원 한도, 지방세 포함 최대 66만원 or 52만 8천원 공제) • 연금 수령 시 : 연금소득세 과세 • 중도 해지 시 : 기타소득세 부과 	

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

	개인형 퇴직연금(IRP)	연금저축
대상	직장인, 공무원, 자영업자	가입 대상에 제한 없음
납입한도	연 1,800만원까지 납입 (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연 1,800만원까지 납입 (IRP 납입액 포함)
세액공제	연 700만원 한도 (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연 400만원 한도 (IRP 납입액 포함)
투자가능 상품	예금, 채권, 펀드, 원리금 보장상품,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군에 투자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험, 신탁 : 안정형, 공시이율형 상품만 선택가능 · 펀드 : 복수 펀드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
일부인출	불가 (단, 법정 사유에 해당시 일부 인출 가능)	가능

연금저축·IRP계좌에서 인출시 세금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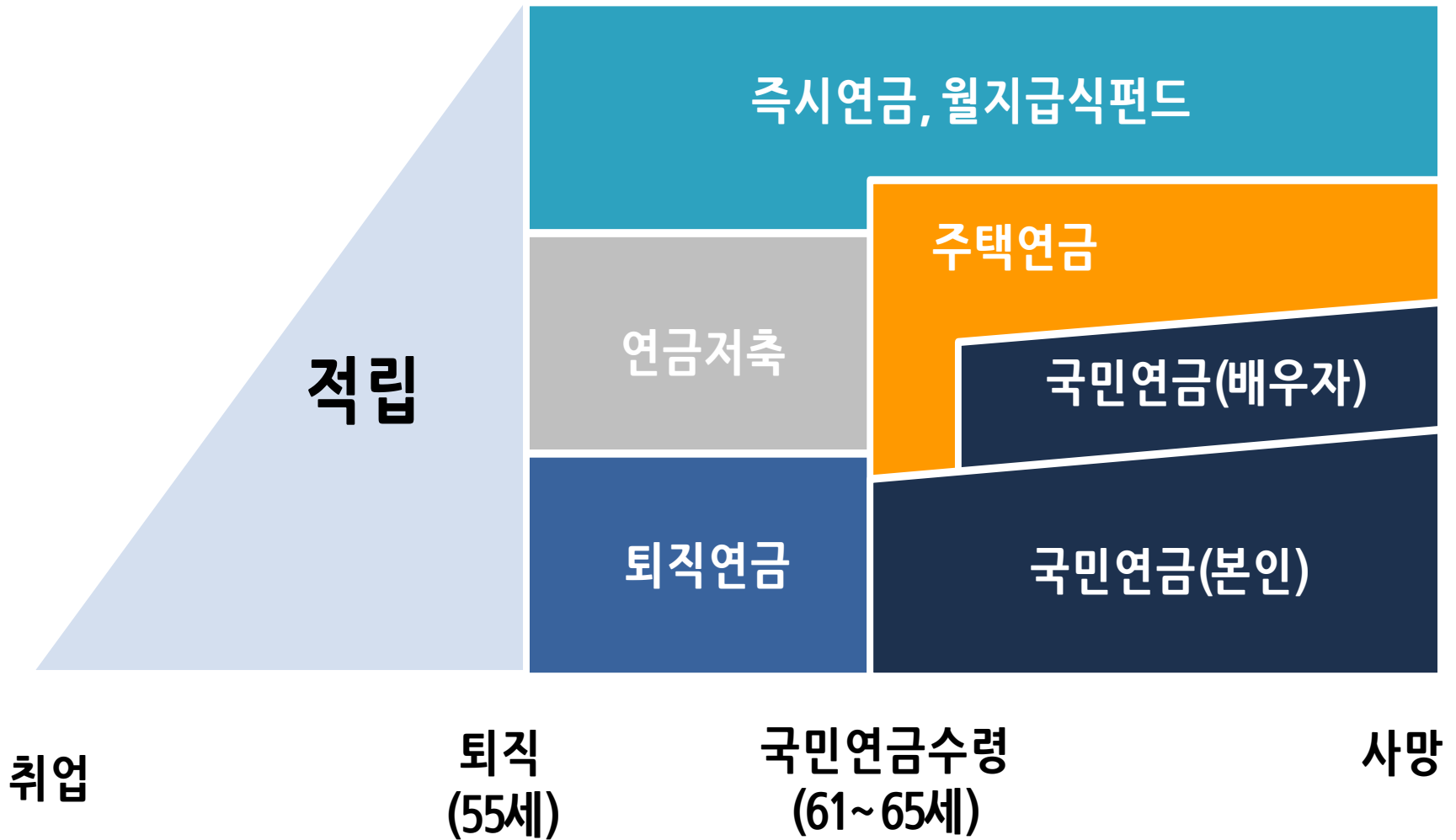
* 퇴직급여 수령시 세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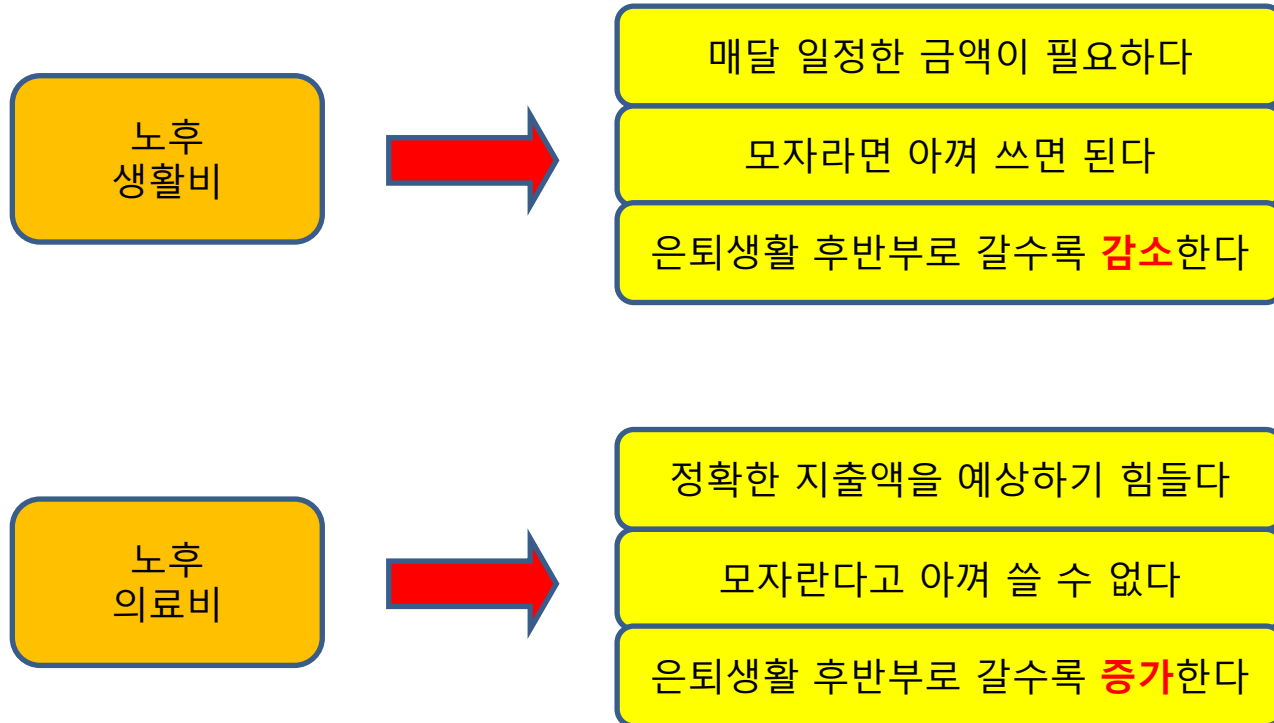
* 연금저축·IRP계좌 수령시 세율

	구분	적용 세율
연금 수령	55세 이상 70세 미만	5.5%
	70세 이상 80세 미만	4.4%
	80세 이상	3.3%
연금외 수령	기타소득세 적용	16.5%(분리과세)
연간 1,200만원 이상 수령	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	

은퇴설계를 통한 연금 모자이크



5. 노후 의료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?



1. 피보험자를 분산하라

-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.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다칠 때 보험금이 지급
- 남편과 아내 모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

2. 보장성 보험의 보장기간을 확인하라

- 보험회사는 보장기간 내에 발생한 질병,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
-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이 짧지 않은지, 공백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함

3.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중 내게 맞는 상품을 찾아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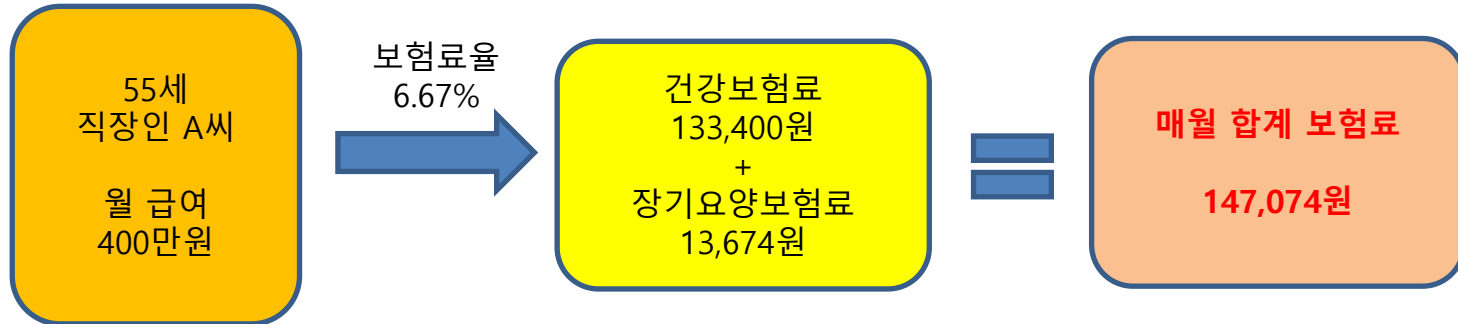
- 순수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돌려 받지 못하지만 보험료가 저렴
- 만기환급형 보험은 만기가 되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므로 보험료가 비싸다

4.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을 함께 활용하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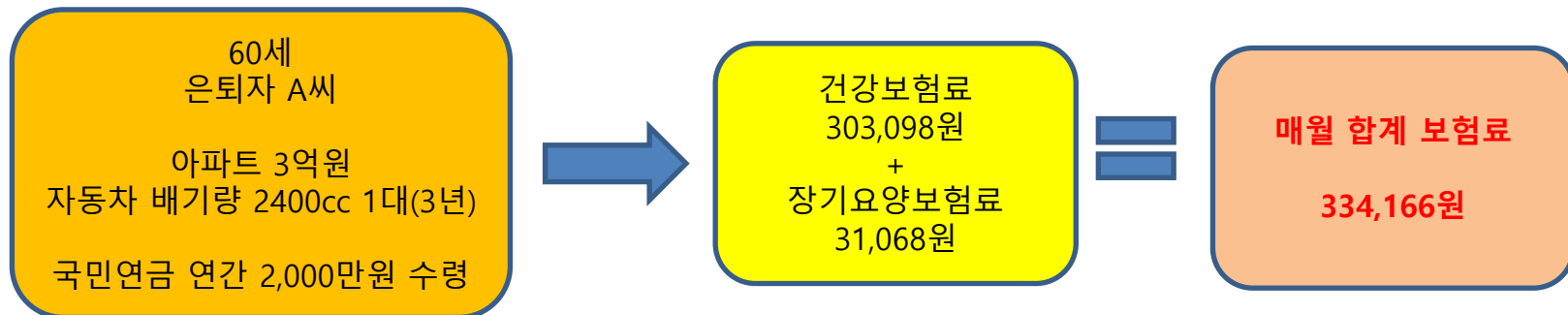
- 정액보험은 특정 질병·사고 발생시 계약한 보험금을 지급, 이를 활용하여 병원비 외에 간병비·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
-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, 실제 지불한 의료비의 80~90%를 보장받을 수 있음

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낼까?

*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 비교(직장가입자)



*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 비교(지역가입자)



소득이 있는 자녀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? 세100 플랜

내 삶의 힘, 100세 시대 은퇴파트너

1. 재산세 과표가 **5억 4천만원 이하**이고, 종합소득이 연간 **3,400만원 이하**여야 한다

2. 재산세 과표가 **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**이고, 종합소득이 연간 **1,000만원** 이하여야 한다

3. 재산세 과표가 **9억원을 초과**하면,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

소득적용방법

- 사업, 임대, 기타소득 : 연간 소득금액의 100% 적용
(기존 비과세였던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은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의 소득으로 산정)
- 근로, 연금소득 : 연간 소득금액의 **30% 적용!!**
- **이자, 배당 등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 해당되면** 연간 소득금액의 100% 적용

➤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

▪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

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**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**

▪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

건강보험료 = [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×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×50%(경감)]+소득월액보험료(법 제110조) (2018.7.1.부터 개정시행)

▪ 혜택

**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(2018.1.1.부터 개정 시행)
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**

▪ 신청기한

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

▪ 신청절차

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

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, 우편, 유선 등으로 신청

- 이웃과는 사이가 좋지만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
- 남편이 살림하는 것은 '돕는 것'이라고 생각한다.
- 아내의 스케줄이나 행동을 체크하고 있다.
- 아내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매정하게 대한다.
- 살림을 돕지는 않지만 잔소리는 한다.
- 아내가 외출하면 잘 따라간다.
- 아내와 자식을 보살폈다는 자부심이 있다.

- 3개 이하 '일단 안심'
- 4~5개 '와시모족 소질 충분'
- 6개 이상 버림받을지 모르니 조심

